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정읍’ 조성

시, 내년 본예산 1800억원 편성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확대
시설단체 대상 신규 시책 전달
민·관 맞춤형 시책 수립 간담회도



이학수(가운데) 정읍시장이 노인시설단체장, 경로당 분회장, 장애인시설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지역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행복 정읍’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의 인구는 2022년 11월 말 기준 10만5176명,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1259명(29.6%)이며 장애인은 9996명(9.5%)이다.

이 같이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노인·장애인 관련 1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층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노인·장애인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신규 복지시책’을 전달하는 한편 민

·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시책수립을 위해 시설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홍보와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노인·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했다.

시설단체 관계자들은 시설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근무환경 실태 등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노인·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시설·단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해상풍력 송전탑, 8곳 통과 계획 변경해야”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 발의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 재검토 결의안’ 채택



지난 16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조민규 의원이 나와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의 송전선로 위치가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최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조민규 의원이 발의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고창·부안 앞 바다에서는 한국해상풍력주와 한국전력, 민간발전사 등이 주관해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46GW(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사업과 관련된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새만금변전소와 서고창변전소로 각각 나눠 계통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가 최근 서고창변전소를 통해 신정읍변전소로 계통 연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예정 경과지인 고창읍 등 8개 읍·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민규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 발전규모 2.46GW 중 80%가 부안군 해역에서 발전할 계획인데 송전선로만 고창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창군민 누구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 때문에 고창군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계통 연계를 추진된다면

송전선로의 추가 설치가 없더라도 연계가 가능하므로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의원의 결의안에는 ▲해상풍력 발전량이 부안군 80%에 비해 고창군은 20%로 고창군 경우하는 송전선로 설치 절대 반대 ▲군민의 반대로 중단된 154KV 서고창·고창 송전선로 사업 재추진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민의 동의를 구할 것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와 각 정당, 사업 관련 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수도시설 동파 대비 상시 비상근무체계 돌입

남원시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예방을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남원시는 최근 겨울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동파 예방을 위해 동파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동에 동파 예방 안내문 4만부를 배포해 주민 홍보에 집중했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항값 및 폐담요 등으로 계량기 함 채우기,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밀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다면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양쪽 연결배관을 헤어 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연결 배관을 서서히 녹여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계량기 동파 예방은 가정과 사업체에서 1차적으로 조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강력한 추위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신속하게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쌀가루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구축



밀가루 대체·가공 쌀 재배 확대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수입 밀가루 대체 및 가공 쌀재배 확대를 위해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쌀가루 추진 목적은 건식제분 가능한 쌀가루 용 품종 전용단지과 차별화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고품질 원료곡 안전공급 기반 조성이다. 사업대상으로는 가공 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 지역 농협이며 쌀가루 전용 품종을 재배하고 단지화할 지역이다.

품종으로는 바로미 2(사진)로 만기 재배용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이앙하면 출수는 8월 중순 이후 100일 안에 수확할 작물이다. 생육 기간이 짧고 가지치기는 왕성하지 않아 재식밀도를 높게 이앙(평당 90주 내외)해 단위면적 당 수수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사적 승격 필요”

군, 고인돌박물관서 학술대회

고창군이 최근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전북도 기념물)’의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고창 아산면 반암리 청자요지’는 우리나라 청자 도입과 기술변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그동안의 사·발굴조사를 통해 유적 내 2곳에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5기 정도가 중첩됐고, 퇴적구름, 건물지, 공방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됐다.

또 인근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사적)’와 함께 청자의 도입과 전개, 관리 체계까지 살펴볼 수 있어 고고·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차인국 조선문화유산연구원은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조사성과 및 가치’를 주제로, 올해 발굴조사된 또 다른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및 건물지 등의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전북지역 초기청자가마 현황을 바탕으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고고·역사적 가치에 대해 검토했다.

이종민 충북대 교수는 ‘벽돌가마의 원류와 고려

시대 벽돌가마의 구조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도입과 진흙가마로의 변천 등에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가 청자 생산과 관련된 건물지, 공방지, 태토 저장 수혈 등 우리나라 가마유적의 구조와 고창 반암리 청자 가마유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세진 문화재청 학예연구원은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출토품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신민철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 방안과 사적 지정 전략’ 등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사적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규명할 많은 주제들이 발표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그동안의 발굴성과 등을 통해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와 함께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과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된다”며 “벽돌가마를 비롯해 전체 가마터 현황 등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